



광양시, 국제농업박람회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알린다

덕촌·형제의병장마을 등 4곳 참여 농특산물·체험 프로그램 홍보

광양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열리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지역의 농촌체험마을을 알리는데 적극 나선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에 덕촌마을, 형제의병장마을, 백운산마을, 고사마을 등 총 4개 마을이 참여한다.

시는 홍보관과 체험마을 부스를 운영해 마을의 대표 농특산물을 고

사리와 콰지감자, 우엉, 미숫가루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농촌관광지원에 대한 안내와 체험활동을 제공해 우리 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자기와 매실씨아울 활용한 공예품과 캘리그라피 엑시, 매실주막밥과 매실수로 만든 커피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광양=김충권 기자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100% 재정자립화 성공

수익구조 창출·공익성·자립화 동시 실현



공공기관이다. 센터는 경기·수도권지역 건강기능성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센터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

자 신뢰도 상승 등에 힘입어 올해 주문량이 폭주, 1년여 만에 100% 재정자립이라는 굴지의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나주시 색소센터의 완전 재정자립화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기반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은 사실상 단기간에 자립하기 불가능 한 통념을 탈피하며, 정부와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 중 출연금 없이 운영되는 전국 유일의 첫 사례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과는 단순 연구지원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넘어선 직원 간의 철저한 기업정신 무장과 더불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일반 식품업체와 같은 시설·장비 100% 가동이라는 과감하고 새로운 프레임이 거둔 시너지효과로 풀이된다.

센터는 올해 들어 나주 매 40톤, 매생이 57톤, 양송이 56톤, 당근 57

톤, 케일 41톤, 단호박 31톤, 사과 30톤, 딸기 11톤, 강황 10톤 등 30여종의 지역 농산물을 약 800톤의 임가 공식품으로 생산, 경기·수도권지역의 건강기능성식품업체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

색소센터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 이사회 사업성과 보고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약 5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올해 목표인 7억 5천만 원까지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가공 수주도 향후 2년간의 해당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오는 2018년에는 11억 원 상당의 매출을 통해 센터가 자립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 보유설비의 농산물 최대 가공생산량은 연간 600톤 정도 인데 반해 주문량은 생산량의 2배 이상인 연간 1,500톤에 달한다'며, '주문량 대비 생산설비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사업분야, 생산능력, 기술 수준 등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전문기술 인력 채용을 통해 보완, 시제품의 연구개발, 소량의 초기생산 지원시설과 대량생산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원 시설을 갖추고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원가개념, 투자수익, 가동률, 고객만족 등을 고려, 치밀하게 준비 작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자립화를 동시에 실현시킨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센터는 올해 들어 나주 매 40톤, 매생이 57톤, 양송이 56톤, 당근 57

순천시, 시민 상상을 담은 2030년 미래비전 수립

권역별·주제별 100여개 시민 상상테이블을 열어갈 예정



순천시는 최근 시민주도 2030년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원도심 주민 100여명과 함께 시민 상상테이블을 열고 본격적인 시민 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시민 상상테이블은 여러 사람이 모여 도시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자유롭고 긍정적인 상상을 나누는

토론에 참석한 조충훈 순천시장은

"내년 본예산부터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을 본청 사업부서가 아닌 읍면동에 직접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는 시민의 생각부터 예산, 권한까지 시정 전반에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는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상상테이블을 통해 나온 시민의 상상과 아이디어들은 향후 피드백을 통해 내년 중순에 수립될 2030년 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앞으로 26일과 27일 신도심과 읍면지역 상상테이블을 추가로 개최하고 11월 중순까지 시민들이 원하는 주제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주제별 상상테이블도 열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나 전략기획과(☎061-749-5544)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영호남 교육협력교류 워크숍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최근 1학기 2일간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및 김천 일원에서 '영호남 교육리더 교육협력교류 워크숍'을 가졌다.

양 기관이 지난 2015년 학생 체험학습과 문화교류, 우수교육 프로그램 정보 공유 등의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워크숍에 순천교육장 등 교육청 직원과 유·초·중학교 교감 등 21명이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김천교육지원청, 김천율곡초 및 율곡중학교, 녹색미래파학관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교육 정보를 교류하고 양 기관의 교육 현안과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하였으며, 직지문화공원, 세계도자기박물관, 직지사 등 김천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식 순천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순천교육지원청 특색교육인 순천만 생태체험학습을 소개하여

김천 교육 가족들로부터 깊은 관심과 친사"를 받았다.

신정숙 김천교육장은 "이번 교육 협력교류를 통해 순천과 김천교육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도 두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호남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임산부 미술치료 태교교실 호응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 플라워리스'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



이날 교육한 '꽃꽂이 태교'는 꽃이 가진 고유의 향기로 임신부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손을 움직여 꽃을 만지고 다듬는 섬세한 동작과 색색의 꽃을 통한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태아의 뇌를 자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서정옥 출산지원팀장은 "이번 프

로그램을 통해 임부의 스트레스 관리와 산모와 태아간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며, "앞으로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육아 생활을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겠습니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군, 자원봉사문화 확산 위해 온힘 다해

화순군이 자원봉사문화의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2개 단체를 선정,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치와 밀반찬 나누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국생활기신회화순군연합회(회장 박태은)는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가정 밀반찬 나누기 사업'을 추진, 관내 부자가정 30가구에 엄마 손맛이 가득 담긴 밀반찬을 만들어 세대를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가사환경정화가 필요한 세대에는 청소 봉사도 함께 진행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처 이는요...
자폐치료 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알게 대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 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듣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 in
건강한 경기, 건강한 생활

염유아건강검진 증자체조기발견,
자폐치료 중인 민족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태아에는 출산기반에 혼합화되며,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홍보센터 129 |

| 고객센터 1577-1000 |